

박물관 소풍

2025년
겨울호
VOL. 20

집중

문학을 넘어 인도주의로, 공감의 힘을 증명하다
부천필벽기념관, '다문화 공존의 미래'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 개최

깊이

활쏘기의 과거와 미래, 지역에서 세계로
부천활박물관 학술세미나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성료

꿀팁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시상식
2025 부천시박물관 포럼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 성과전
<필 벽의 인연, 하나가 되다>展
부천시박물관 학술지 '부천과 박물관, 제3호 발간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필벽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필벽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박물관 관람 안내

운영시간
9:30 ~ 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추석 당일 / 법정 공휴일 다음날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은 법정공휴일 휴관)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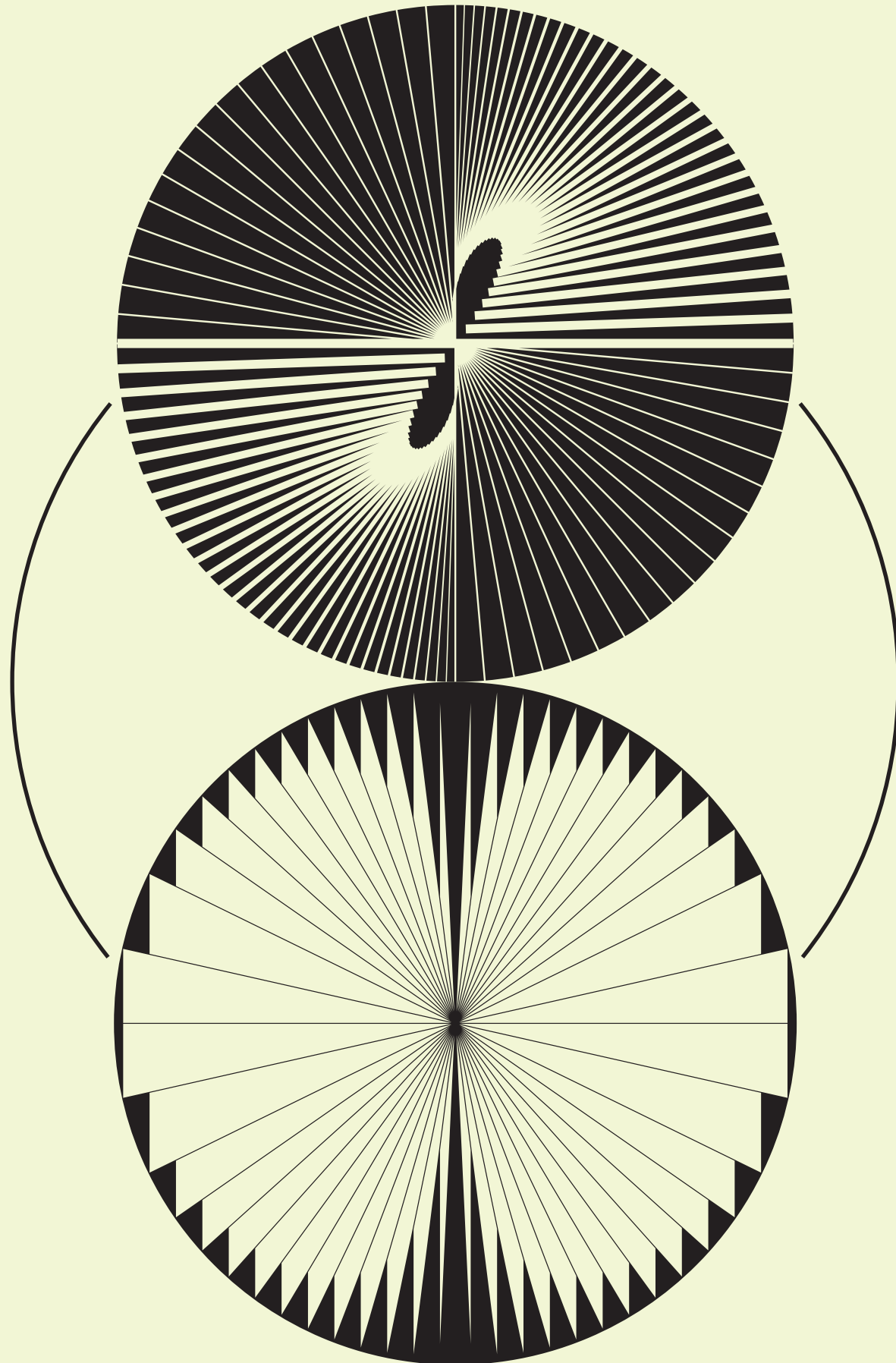
부천시립박물관
(1447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8
TEL. 032-684-9057~8

부천활박물관
(1465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TEL. 032-614-2678

부천펼벽기념관
(14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14번길 61
TEL. 032-668-7565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1441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77
TEL. 032-320-6433

www.bcmuseum.or.kr



CONTENTS

04 집중 |
문학을 넘어 인도주의로,
공감의 힘을 증명하다
부천펼벽기념관, '다문화 공존의 미래'
2025 펼벽국제심포지엄 개최
박민주(부천펼벽기념관 학예사)

06 깊이 |
활쏘기의 과거와 미래, 지역에서 세계로
부천활박물관 학술세미나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성료
이준일(부천활박물관 학예사)

08 끌림 | 부천시박물관 소식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시상식
2025 부천시박물관 포럼
2025 펼벽국제심포지엄 성과전
〈펼 벽의 인연, 하나가 되다〉展
부천시박물관 학술지
'부천과 박물관' 제3호 발간

10 어울림 | 2025년 부천시박물관
기증자료 소개

박물관 소풍 | 2025년 겨울호 | 기간지 통권 20호

발행처 |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발행일 | 2025년 12월 20일

발행인 | 문동수

기획총괄 | 윤지원

편집기획 | 김재영

편집지원 | 최혜리

디자인 | 아이삭컴퍼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8

전화번호 | 032-684-9057~8

홈페이지 | www.bcmuseum.or.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천시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문학을 넘어 인도주의로, 공감의 힘을 증명하다

부천필벽기념관, '다문화 공존의 미래'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 개최

글 | 박민주(부천필벽기념관 학예사)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인도주의자 펄 벅(Pearl S. Buck)의 정신을 기리는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0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문화 공존의 미래'를 주제로, 펄 벅의 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었다. 특히 한국필벽재단 창립 60주년과 부천필벽기념관 개관 20주년(2026)을 앞둔 시점에서, 부천이 펄 벅의 인류애 정신을 이어받은 세계적인 교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현장에는 펄벅인터내셔널(PSBI)과 중국 전장시 펄벅연구회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혜숙 부천시의원,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 문동수 부천필벽기념관장, 권택명 한국필벽재단 상임이사, 최숙미 한국문인협회 부천시부 회장, 간호윤 한국작가회의 부천시부 회장, 박희주 수주문학제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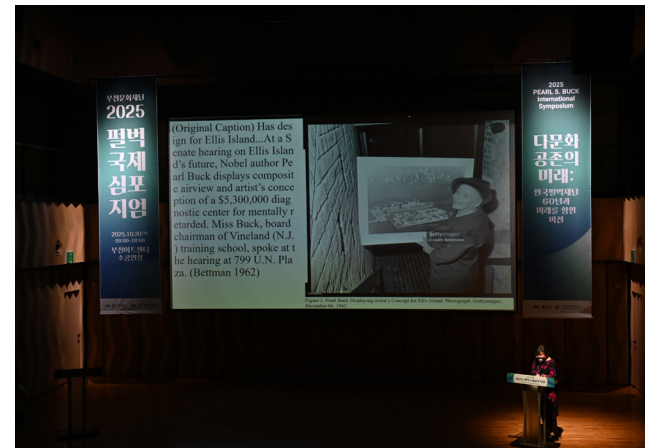
문동수 부천필벽기념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펄 벅의 인류애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6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인류 공존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초대"라며, "특히 펄벅인

터내셔널(PSBI)이 펄 벅의 귀중한 유물을 부천에 영구 대여 및 기증한 것은 문학과 인류애로 맺어진 진정한 문화교류의 결실이며, 부천이 펄 벅 정신을 계승하는 세계적 교류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연구자들이 '펄 벅과 다문화 공존', '펄 벅의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심도 깊은 종합토론을 이어가며 학문적 논의의 폭을 넓혔다. 마지막 순서로는 펄 벅의 방한 당시를 기록한 백남식 사진작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펄 벅과의 특별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펄 벅은 1967년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하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확산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이번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부천을 중심으로 한 인문·문화 교류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26 필벽국제심포지엄'은 중국 안휘성 쑤저우시(安徽省 宿州市)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천필벽기념관 측 발표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쏘기의 과거와 미래, 지역에서 세계로

부천활박물관 학술세미나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성료

글 | 이준일(부천활박물관 학예사)

부천활박물관이 지난 11월 27일 개최한 「활쏘기 문화의 전승과 활용: 지역에서 세계로」 학술세미나는 부천 활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는 학문적 논의를 넘어, 활과 함께 살아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무형유산의 지역문화적 가치를 되짚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활쏘기 문화, '궁시장' 보유자의 존재, 그리고 활터라는 전통 공간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부천은 김장환 궁시장이라는 거장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이자, 김윤경 궁시장을 중심으로 활문화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된다.

활쏘기, 문화의 틀 안에서 새로이 조명되다

기조강연을 맡은 나영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활쏘기가 단순한 무예를 넘어 유교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 언어와 예절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활쏘기가 조선 무과시험의 핵심이었고, 『무과총요』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전통 무예의 중심이자 'K-스포츠'의 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국가무형유산 등재와 반구천 암각화에서 확인된 활쏘기 장면은 무형의 전통이 유형의 흔적과 만나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계기라고 짚었다. 나 교수는 '활쏘기'라는 고유한 이름과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한편, 전승과 교육, 지역의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현대적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무형이 만나는 활문화와 박물관의 역할

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정연학 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은 '궁시장'이라는 장인의 정체성과 그 유산이 지

닌 문화사적 가치를 짚었다. 그는 궁시장 전통과 편사문화 등은 유형과 무형이 결합한 활문화의 '총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박물관 차원의 유형유산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기훈 전 육군박물관장은 전승 환경의 취약성과 문화유산 등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발표가 활과 궁시장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승환경과 제도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무형유산 전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

두 번째 발표에서는 조성실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살아있는 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 접속하는 새로운 전시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무형유산의 전시는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는 창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람객이 무형유산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서사가 교차하는 협업의 무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와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배은석 학술연구교수는 토론에서 '해석의 권위를 박물관 중심에서 전승자·공동체·관람객으로 분산'하고, 박물관은 다양한 해석을 조정·협상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논의를 심화했다.

도시의 활, 정체성과 문화자원으로

마지막 발표에서는 조소연 동국대학교 전임연구원이 부천시의 활문화를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현대적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성무정 같은 공간이 오늘날에도 전통을 계승하는 데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며, 전통을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 맥락에 맞춰

변형·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자원화, 교육 콘텐츠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때 활문화는 지역성과 공공성, 참여성과 창의성이 만나는 도시문화 자원으로 살아난다는 제안이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예천박물관 이재완 관장은 부천 활쏘기 문화의 대표성, 추진 주체로서의 지자체 역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축제·대회 등 적극적 브랜드화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박물관은 살아있는 전통의 플랫폼

문동수 부천시박물관장은 개회사에서 활쏘기 문화는 단순한 전통 무예를 넘어,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활에 공동체의 기억과 자연과의 조화, 활터에서 함께 수련하며 쌓아온 유대와 존중의 정신이 담긴 복합적인 문화유산이라

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가 활박물관 전시가 '박제된 유물'에 머물지 않고 '살아 있는 행위'를 함께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을 밝혔다. 또한 무형유산의 본질이 행위와 공동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전시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천활박물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과 무형유산을 연결하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활문화의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함께 조망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도약하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시상식

지난 11월 14일 부천시립박물관에서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부천 문인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상자뿐만 아니라 지역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에서는 복사골시낭송예술협회 낭송가들이 수상작을 낭독해 참석자들이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부천 문인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부천문인회가 함께 지역 문학의 방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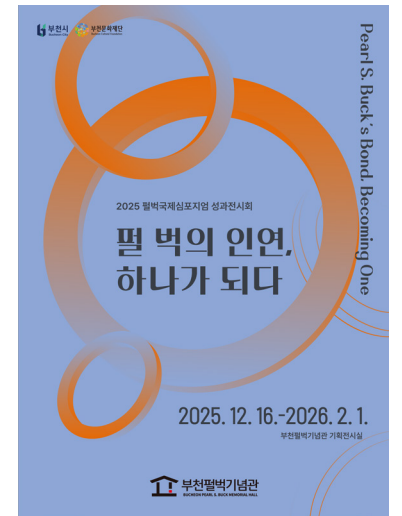
2025 부천시박물관 포럼

부천시박물관은 12월 12일 '예술·관광·교육 연계를 통한 박물관 확장 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2025 부천시박물관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유나킴 부천시박물관 2025년 예술로협업사업 리더예술인의 「예술 협업의 실제 및 확장 제안: 창작·협업·공동기획 성과」, ▲한호성 부천시 콘텐츠평과 관광 전문관의 「박물관 기반 관광 확장 전략」, ▲김시나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교육 공동체 기반 참여형 박물관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예술·관광·교육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토론에는 이호정 문앤도자기 대표, 이일주 부천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미영 부천산업진흥원 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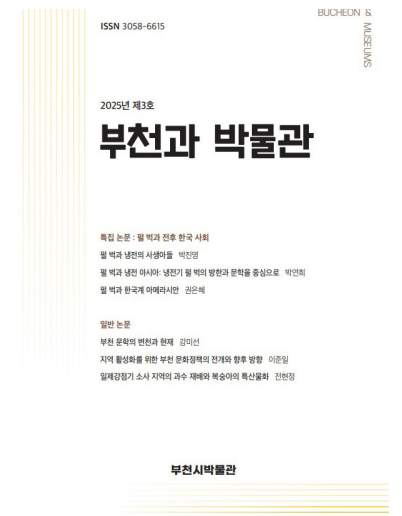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성과전 <펄 벅의 인연, 하나가 되다>展

부천펄벅기념관은 12월 16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성과전 <펄 벅의 인연, 하나가 되다(Pearl S. Buck's Bond, Becoming One)>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된 펄벅국제학술심포지엄의 개최 결과와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펄 벅을 매개로 이어진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교류 현황과 기증 자료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중국 전장시 펄벅연구회 회원들이 기증한 서화 작품 ▲미국 펄벅인터내셔널(PSBI)이 기증한 펄 벅의 애장품 ▲2009년 국내 작가들의 그림이 있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입장 마감 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박물관 학술지 『부천과 박물관』 제3호 발간

부천시박물관은 올해 12월 박물관 학술지 『부천과 박물관』 제3호를 발간했다. 제3호에서는 올해 부천펄벅기념관이 개최한 펄벅국제심포지엄과 발을 맞춰 '펄 벅과 전후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의 특집 논문 3편을 실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펄 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사회상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부천의 문학, 문화정책, 특산물에 대한 일반 논문 3편을 수록해 부천과 관련한 연구를 축적했다. 박물관은 앞으로도 매년 학술지를 발간해 박물관 전시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다. 또한 DBpia와 제휴하여 『부천과 박물관』 수록 논문들을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부천시박물관 기증자료 소개

2025년 한 해 동안 열두 분(곳)의 기증자께서 총 217건 919점의 다양한 자료를 부천시박물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들은 부천의 행정, 교통, 산업, 공예, 문학 등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 ### 2025년 기증자 및 기증자료
- 이해선**
제15대(민선 1기) 부천시장 활동 관련 자료 31건 36점
 - 이훈희**
故이상덕 화백 자료 25건 252점
 - 심영섭**
부천 점말 제작 시루 1건 1점
 - 소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신여객 기록물 12건 15점
 - 신길룡**
삼양중기 근로자 관련 자료 21건 24점
 - 이창원**
문학 관련 자료 37건 91점
 - 김옥녀**
전통 한지공예 관련 자료 10건 84점
 - 송철흠**
부천시의회 초대 의장 활동 관련 자료 59건 320점
 - 김정환**
청동 화살촉과 거꾸집 2건 3점
 - 김윤수·이동부**
현대 민속자료 13건 16점
 - Pearl S. Buck International**
필 벅 소장 자료 5건 76점
 - 김정희**
광명단 사건 관련 자료 일괄 1건 1점



이해선
당선증



이훈희
팔레트



이훈희
이젤



신길룡
작업모



신길룡
작업복



김옥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 조명



송철흠
의회 원년 기념 백자



부천시박물관 기증·기탁 안내

집 또는 사무실 한편에 잠들어 있는 옛날 물건이 있으신가요?
부천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부천시박물관의 기증 대상입니다.
사진, 문서, 상자, 교복, 물건 등 후대를 위해 남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박물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옛 자료들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최대한 원형을 유지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문의 : 부천시립박물관(032-320-6413) / 이메일 접수 : kimtd@bcf.or.kr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cmuseum.or.kr